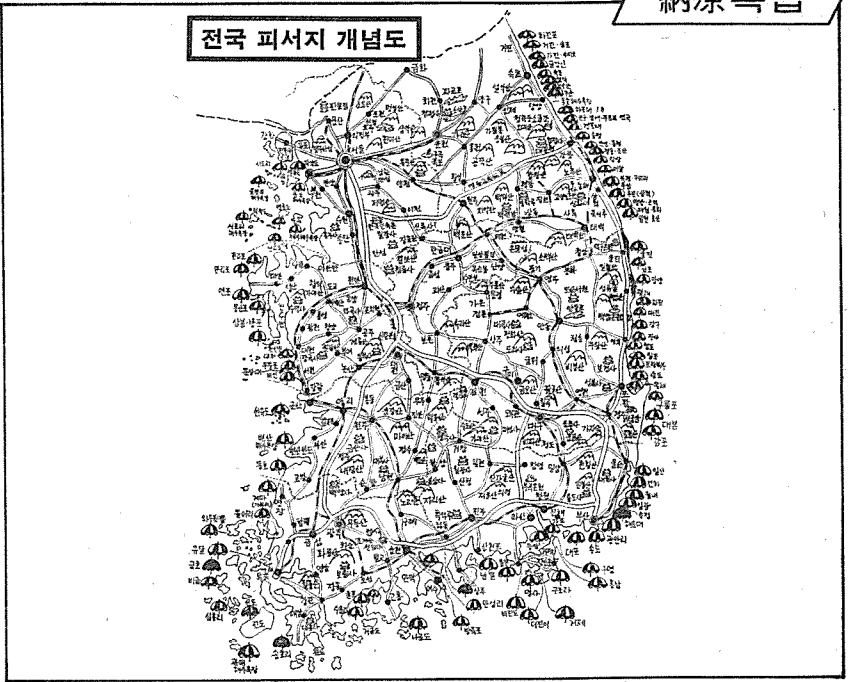


전국 피서지 개념도



포항시 동남쪽 20km에 있는 수심이 얇은 아담한 해수욕장이다. 물이 깨끗하고 대보등대가 북쪽으로 6km 지점에 있는데 이 등대에는 16마일 밖에서도 볼 수 있다는 광도 1,000축광의 등화가 가설되어 있다.

교통=①포항-구룡포 1일 12회 운행.

숙박=주민자영회에서 운영하는 이곳 해수욕장의 각종시설은 일반상점, 샤워장, 전망대가 있으며 민박이 가능하다.

살기미 해수욕장

全北 扶安郡 변산해수욕장 남서쪽

6 km에 위치 지방문화재 28호로 지정된 彩石江과 작고 아담한 어촌 格浦鎮 마을 가운데 길이 1km의 모래 비단을 깔아 놓은 듯한 곳이다.

각양각색의 무늬석과 맑디 맑은물, 그리고 격포항의 고깃배에서 항상 싱싱한 어류를 혈값에 구입할수 있다.

300 m 길이의 松林속은 더 없는 캠핑장소이며, 해수욕장 북쪽엔 천연기념물 123호인 수백년된 후박나무들이 200 m의 해안을 따라 숲을 이루고 있다.

교통=全州, 井邑, 扶安에서 버스 수시로 운행. 부안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오전 7시20분부터 오후 7시 40분까지

納凉특집

1시간 간격 운행, 1시간 소요.

숙박=해수욕장엔 방갈로식 숙박시설이 있고 격포마을에서 여인숙및 민박을 해야 한다.

돌머리 해수욕장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함평읍에서 6km 지점에 위치 백사장 길이 800m, 폭 150m 평균수심 1.5m 천연기념물 110호인 함평복가시나무, 함평 대동면의 팽나무, 느티나무, 천연기념물 108호인 개서나무등이 있다.

교통=광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10회 운행되는 함평행 직행버스 이용 52km, 1시간소요. 함평에서 해수욕장까지는 피서철에는 시내버스가 30분 간격 운행.

숙박=민박을 할수 있으며 피서객의 과반수가 캠프를 즐기는 곳.

鎭下 해수욕장

경남 鎭山군 서상면 진하리, 부산 북쪽 45km, 울산 남쪽 24km에 위치.

소나무 방풍림이 해변을 두르고 있고 앞바다에 명선도(名仙島)가 있으며 남단에 돌출바위가 있어 경관이 좋다. 도동동굴이 해수욕장 후면에 있다.

백사장 길이 1km, 폭 30m로 모래질은 양호하다. 회야강(回夜江) 하구에 위치해 담수욕도 겸할수 있다.

경사도 10°, 평균수심 1m.

교통=울산~진하 시외버스 1일 8회

운행 40분 소요, 부산~진하 1일 10회 운행 90분 소요.

숙박=민박이 가능하다.

松湖里 해수욕장

全南 해남읍에서 남쪽으로 40km에 위치 미세하고 보드라운 모래알 수심이 일정하고 경사가 완만해 초심자에게 적합하다. 해수욕장 뒷편엔 돌레가 한아름이나 되는 노송이 울창하고 각종 어족도 풍부해 즉석 회를 즐길수 있다.

불만한 곳은 사자봉(해발 122m)과 한반도의 땅끝 土末을 비롯, 귀로에는 12km 북쪽에 있는 達摩山과 美黃寺가 있다.

교통=光州에서 해남읍에 이르러 이곳에서 송호리까지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는 해광여객 버스 이용.

숙박=여러 민박촌이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

和順 해수욕장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리, 서귀포 서쪽 23km 지점에 위치 백록담 분화구의 원주위와 같다는 제주 10경의 하나, 삼방산자락에 위치한 화순해수욕장은 백사장이 넓고 길며 주위 경관이 수려하다.

백사장 길이 2km, 폭 80m로 삼방산 바로 밑의 해안 절벽은 비경을 이룬다.

교통=서귀포~화순 시외버스 1일 50회 45분 소요. 제주시~화순 시외버스 1일 50회 운행, 2시간 소요.

숙박=민박을 할수 있으며, 비상약품은 지참하는 것이 좋다.

七甲山 長谷계곡

古來로 「충남의 알프스」라는 별명을 가진 이 산은 면적 32km²의 웅장한 명산으로 1973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웅장한 느낌은 없으나 협곡마다 수림이 울창 정글을 이루고 있으며 대낮에도 킁킁한 곳이 많고 계곡마다 기암괴석 사이를 냉천히 흘러 여름철 피서지로는 안성마춤인 곳이다.

한편 칠갑산을 에워싸고 흐르는 작천과 지천의 백사장은 천연적인 담수욕장으로 적합하며 야영을 즐길수 있는 캠프장도 곳곳에 산재해 있다.

교통=서울을 남부(용산)터미널에서 청양행 고속직행 오전 7시50분 부터 오후 6시까지 50분 간격 운행 164km, 3시간30분 소요, 대전~청양 1일 60회 운행.

지리산 화엄사계곡

해발 1,506m의 노고단은 구례 화엄사에서 10km, 계속 오름길이다. 초행자는 걸어 올라 노고단에 닿으면 노곤하지만 우리나라 자연 경관 중에서도 특이한 아름다움과 시원함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광대한 넓이의 노고단山頂은 일종의 高原지대를 이루고 있는데 숲속에 치솟은 서양인들의 별장 굴뚝이 매우 인상적이며 꽃머느리, 밥풀꽃을 비롯한

갖가지 고산식물이 자연의 꽃밭을 이뤄 내려다 보이는 이곳 특유의 「雲平線」과 더불어 여름을 전혀 잊게 하는 곳이다.

교통=南原공용버스터미널에서 오전 7시20분부터 오후 6시25분까지 화엄사까지 1시간 간격 운행 1시간 10분 소요.

생활의 지혜

◆스타킹을 오래 신으려면

스타킹은 신을때 아무리 주의를 해도 빨래 때 다른 빨래와 섞어 빨면 쉽게 손상됩니다.

스타킹은 간단히 세수비누만 묻혀도 잘 빨아지므로 외출 후엔 반드시 빨아두도록 한다. 헝구고 나서 타월로 물을 빼면 벌써 다 마른것처럼 되므로 의자나·손잡이등에 걸쳐 놓으면 2시간 이내에 신을 수가 있다.

◆두부를 잘 다루려면

두부는 부스러지기 쉬운 식품이다. 두부를 부스러지지 않게 다루려면 요리하기 전에 소금을 조금 탄 물에 20분동안 담그면 다루기가 편하다.

조릴 때는 먼저 살짝 데쳐내어가지고 사용하면 간이 속까지 배어들어맛이 있게 된다. 이때 단시간에 조리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 오래 익힐 때는 기름에 살짝 익혀서 쓰는 것이 좋고 국이나 찌개에 넣을 때는 두부가 떠오르면 그만 끓이도록 한다.